

고양시 일산서구 문용배 씨 농가에서 재배한 '참드림' 쌀이 '2020년 제3회 참드림 쌀 품평회'에서 최고 품질인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제3회를 맞은 참드림 쌀 품평회에서는 경기도 21개 시·군에서 50인의 농업인이 출품한 '참드림' 쌀에 대해 1차 재배 이력, 2차 품질평가 등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품질의 쌀을 선정해 고양시 '문용배 씨 농가'의 쌀을 대상으로 최종결정했다.

글·사진 양희경(고양시 농업기술센터)



- 1 가와지볍씨 참드림 쌀
- 2 고양시 쌀연구회 영농조합 쌀 수출



품질 좋은 고양시 쌀은 현재진행형

고양시 농가, 제3회 참드림 쌀 품평회 대상 차지



국산 벼 품종인 참드림의 보급 배경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한강이 시의 남쪽과 서쪽 경계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남부 지역에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덕양구의 신평동에서 일산서구의 법곳동에 이르는 한강 연안지역은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예로부터 쌀 산지로 알려져 있었다.

1990년대 일산신도시 개발로 경지면적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서울 근교농업으로 고소득 농업인 화훼·시설채소의 비중이 높아졌다. 매년 개최되는 꽃박람회로 화훼농업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또한, 전국에서 화훼산업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으며, 선인장은 수출 효과 증폭이다. 이에 반해 도시화로 인해 가장 가파르게 줄어든 작목은 쌀이다.

1970년대부터는 다수확품종인 통일벼의 시대였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찰기 있는 자포니카 종이 아닌 찰기가 없는 인디카를 기본으로 한 통일벼는 엄청난 수확량을 자랑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밥맛이 없고, 찰기가 없는 통일벼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됐다. 2000년대 들어 식습관의 서구화, 쌀의 관세화로 쌀 소비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밥맛이 좋은 품질 좋은 쌀을 소비하는 시대로 변화됐다.

경기도 쌀 재배면적은 7만 8,000ha다. 평택, 화성 1만 2,000ha,



고양시 소재 논

이천 8,100ha, 안성 7,500ha, 파주 6,100ha, 김포 4,500ha로 고양시는 999ha로 경기도 면적의 1.3%이다. 일본 쌀의 강세는 여전하다. 경기미의 56.1%는 추청과 고시히카리 등 일본산 품종이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재배되는 국산 벼 품종비율은 전년 대비 7.9% 상승한 43.9%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산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기후 및 토양 특성에 맞는 참드림 및 경기9호 등 다양한 품종을 육종하여 시군에 보급했다. 참드림은 경기5호로 2004년 교배되어 2012년부터 2014년의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 경기도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만생종으로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이며, 특히 재래종 유래의 부드럽고 찰진 토종의 밥맛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아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양시는 2015년부터 참드림을 보급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2020년 참드림 재배면적은 300ha까지 늘어났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값진 수상

작년은 농업인에게도 어려운 한 해였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던 농산물의 판매에 문제가 생겼다. 기상상황도 좋지 않아 농산물의 수량도 저하되고, 품질도 떨어졌다. 쌀은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비중이 높아 타격을 더 크게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는 품질 고급화와 특화 품종 육성을 통해 어려운 쌀 산업의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



2020년 제3회 참드림 쌀 품평회에서 고양시 문용배 씨 농가 재배 쌀이 대상을 받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참드림 쌀 품평회'는 경기도가 육종한 쌀 품종인 참드림의 확대 보급과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경기도 쌀을 평가·선정하는 자리다. 이 품평회는 경기도 각 시·군 50인의 농업인이 출품한 쌀을 1차 재배 이력, 2차 품질평가 등 종합적으로 심사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품질의 쌀을 선정했다. 문용배 씨 농가는 작년 코로나19의 확산과 최악의 기상 상황 속에서도 참드림의 재배특성에 맞는 맞춤시비, 친환경 병해충의 적극적인 관리 대응으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양시에서 많이 재배되는 대표 품종, 가와지1호

가와지1호는 참드림과 함께 고양시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품종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경기9호를 2016년 고양시 지역적응시험을 통하여 보급한 품종이다. 한반도 최초 재배 법씨인 가와지 법씨의 상징성을 담아 가와지1호라고 이름을 붙이고 고양시에서만 재배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리 잡기까지 시작은 쉽지 않았다. 키가 작고 분얼이 많이 되지 않는 품종 특성으로 이양할 때 비료를 기존 품종과는 다르게 시비해야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재배가 다른 품종보다 까다로워서 농민들은 재배를 꺼렸고 기존 멍쌀과 찰쌀로 분류되던 쌀과 다르게 반찰의 특성으로 소비자에게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농가들의 가와지1호에 맞는 재배법 개선 노력으로 지금은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찾는 품종이 됐다. 아이들이 밥맛을 가장 먼저 인정해준 것이다. 가와지1호를 급식하는 학교에서는 잔반을 남기지 않아 영양사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 됐다. 어려움 속에서 미국 수출도 꾸준히 하고 있다. 2018년부터 미국 LA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꽃마'로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뉴욕의 유명한 온라인 유통업체인 '김씨마켓'으로 현미 4,800kg 수출이 성사됐다.

식량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한 산업이고 특히 한국인에게 쌀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한다.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과 고양시의 노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